

텔레비전 시청 장르별 시민성 및 가치관 계발 효과의 차이

Genre-specific Cultivation Effects of TV Programs: Cultivating Viewers' Citizenship and Value Attitudes

나은경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Eun-Kyung Na(eunniena@kookmin.ac.kr)

요약

다매체다채널 및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콘텐츠를 형성하는 프로그램들의 유형과 성격들도 변화하는 가운데, 미디어 이용을 오락과 정보로 양분화하던 전통적 연구모형이 근래의 미디어 환경에서도 적절한가 탐구해볼 시점이다. 더욱이 오락 프로그램에 리얼리티 성격을 가미한 혼종 장르가 주요한 경향을 이루고 있는 현재 국내 상황에서 보다 세분화된 장르별 이용의 차별적인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과거에 동일한 '정보'적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었던 뉴스와 시사토론, 교양다큐의 각 장르는 전통고수 및 성공지향의 가치관 계발에 관한 한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과거에 동일한 '오락'적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었던 드라마와 리얼리티 장르 역시 가치관 계발 및 사회신뢰에 서로 구별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라마 시청은 사회신뢰에는 정적으로, 관용에는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동일한 장르마저 시민성의 속성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텔레비전 시청 | 장르 | 시민성 | 가치관 | 신뢰 | 관용 | 문화계발 |

Abstract

In this media convergence era when the 'hybrid' genres increase, it has been important to explore distinguishing genre-specific effects of contents use. This study revealed that news, current affairs/talk, and documentary genres respectively produces opposite directions of influences on values; likewise, drama and reality genres also respectively produces differentiated impact on values and social trust. Drama viewing itself shows contrary patterns on civic attitude, i. e., positive relationship with social trust while negative with tolerance.

■ keyword : Genre-specific Media Use | TV Program | Civic Attitude | Values | Trust | Tolerance | Cultivation |

I. 서론

1.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혼종(hybrid)' 장르의 증가

미디어 환경이 다양화되면서 연구의 모형에도 과거와는 다른 세부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시각들이 등장하

고 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기기 측면에서의 다양화는 물론, 동일 미디어 내에서도 채널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다각화되는 추세에서 텔레비전은 지상파 방송이 더 이상 미디어 이용의 중심이 아니며, 수많은 케이블 채널과 위성방송과 VOD들이 난립한 가운데, 언론사들의 종합편성채널까지 추가된 상황이다. 이러

접수일자 : 2013년 06월 17일

수정일자 : 2013년 06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7월 01일

교신저자 : 나은경, e-mail : eunniena@kookmin.ac.kr

한 다매체 다채널 상황에서 콘텐츠를 형성하는 프로그램들의 유형과 성격들도 발맞추어 변화되고 있다. 과거의 미디어 효과 연구에서 미디어의 이용을 오락과 정보로 양분화하던 연구모형이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도 효과적이고 적절한 연구틀인가 생각해볼 시점이다. 이에, 이 연구는 텔레비전 시청에서 보다 세분화된 장르별 이용에 따른 태도 형성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욱이 최근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현황은 국내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에 리얼리티 성격을 가미한 융합 장르가 주요한 경향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 다큐 드라마 등의 혼종 장르까지 등장하여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1][2].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 점유율과 영향력에 비해 부족하다. 적극적인 텔레비전 시청은 내용의 유형에 대한 선택적인 노출을 뜻한다. 이 연구는 텔레비전의 서로 다른 유형의 내용을 시청하는 것이 수용자에게 동일한 의미들을 창출해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여러 장르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각 장르의 고유한 공식과 관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크게 프로그램의 구조(structure)적 측면과 내용(content)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시청자에게도 차별화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3]. 텔레비전 장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주로 형식적인 제작방법인 카메라 움직임과 편집기법 등의 차이를 가리키고,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픽션 장르와 논픽션 장르가 범주 소재를 동일하게 다룬다 하더라도 이야기 전개나 결말의 관점 등에서의 차이를 뜻한다. 프로그램의 장르별로 차별화되는 이러한 구조적이고 내용적인 차이들은 수용자의 사고와 태도에 서로 다른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텔레비전 시청이 이용자의 가치관 및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오랜 시기에 걸쳐 많은 연구들에 의해 검증돼 온 바 있다. 하지만 텔레비전의 다양한 내용들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의 차원도 똑같은 것이 아닐 수 있다. 서로 다른 장르들의 콘텐츠 이용을 하나의 시청량 추정치로 결합시키는 방법으로는 그 아래에

더 강하게 자리잡은 영향요인을 불분명하게 가릴 위험이 있다. 텔레비전 장르는 특정 내용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범주화되는, 프로그램들의 한 ‘분류(taxonomy)’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나 내용이라 할지라도 구분되는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다[4][5].

“텔레비전 장르는 텔레비전 시리즈물의 내용에 대한 관습들 - 포맷, 주제, 전체, 성격묘사 등을 규정하는 공식들 - 이다. 현대의 텔레비전에서는, 장르의 경계에 대해 작가, 제작자, 편성자, 광고주, 그리고 시청자 사이에 형성된 합의가 대중문화의 다른 어떤 영역에서보다 아마도 더 클 것이다. 새로운 시리즈에 대한 아이디어는 폭넓게 인정되는 장르에 관해 ‘이야기’ 되고, 그 동안 방송국의 편성 결정, 광고주의 구매 결정, 그리고 시청자의 시청 패턴이 모두, 어느 정도, 프로그램 범주들에 대한 이해의 공유에 기반한다. (p. 1292)[4]” 이러한 배경들로 인해 텔레비전 콘텐츠는 동일한 장르나 포맷이라 할지라도 상호 구별되는 속성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 프로그램 장르의 시청 결과에는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콘텐츠 장르별 가치관과 시민성 개발의 차이

문화개발 연구에서도 텔레비전 시청을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다루기보다, 프로그램 장르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르를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6]. 이러한 차이에 대한 추정은 각 장르마다 고유하게 사용되는 공식이나 관습에 근거한다. 가령, 사건보도 중심적인 뉴스, 범죄수사물의 영웅주의, 코미디물의 오해와 당황, 게임쇼의 어리석음과 우연 등은 모두 수용자에게 세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지형의 변화이다. 문화개발 이론이 소개된 1970년대는 지금에 비해 프로그램의 유형과 종류가 훨씬 적고 단순했기 때문에 당시의 수용자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아무리 선택적으로 고른다 하더라도 대개 비슷한 유형의 내용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프로그램의 포맷과 장르가 다양화되고 혼종적으로 급변하여 시청 행태도

변화하는 환경에서 그러한 가정이 여전히 유효할지는 의문이다[7].

장르별 문화계발 효과 연구는 텔레비전 픽션(드라마)과 논픽션(뉴스 범죄 보도) 장르에 집중되어온 경향이 있다[3][7-9]. 현재의 미디어 환경, 즉 리얼리티와 같은 혼종 프로그램의 증가, 프로그램 포맷과 장르의 다변화를 반영하여 좀더 다양한 장르들 각각의 차별적인 영향과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의 영향을 연구한 과거의 문헌들은 정보 매체와 오락 매체를 구분했다[10]. 오락 매체는 메시지를 생성하고 극적으로 표현한 결과 개인적인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보 매체는 상대적으로 더 건조하여 사회적 위험 인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오락 매체를 이용하는 시청자와 정보 매체와 같은 특정 장르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의 시청 동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락 매체와 정보 매체를 시청한 이후에 시청자들의 의식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13].

그러나 생생한 매체와 건조한 매체의 이분법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다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 매체가 점점 더 생생하고 극적으로 변해가면서 매체의 장르는 주목할 만한 변형을 거쳤다[14]. 이러한 변형은 생생함이 정보 매체와 오락 매체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적절한 기준이 더 이상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혼종 매체 장르가 등장한 이래, 매체의 장르를 정보적이거나 아니면 오락적인 유형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가령,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통합한 다큐 드라마, 혹은 리얼리티 쇼를 변형한 인포테인먼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혼종 매체 장르들이 사실성을 가미한 오락의 기능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드라마오락 장르 이용은 사회신뢰와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시민규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한 간접적인 관련이 있었고, 사회결사체 참여에는 드라마 시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5][16]. 이렇듯 조금 상충적이고도 모호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기존 연구들이 장르를 구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의 전통적인 정보와 오락의 이분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정보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의 보다 다양한 장르에 따른 미묘한 차이를 구별해내지 못한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매체 이용에서 이러한 장르별 차이는 수용자의 가치관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7][18]. 뉴스와 대별되는 오락 장르 이용은 보수주의 가치 및 소비 지향적인 개인 성공 위주의 자기성취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하지만 단순히 뉴스와 오락의 이분법으로는 현재의 다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설명하는 틀로 충분하지 못하다. 가령, 리얼리티 텔레비전 시청이 마키아벨리즘적 가치를 개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건대[19], 동일한 오락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세분화된 장르별 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연구가 가치관과 태도에 미치는 장르별로 차별화되는 영향을 탐구하는 목적을 가진 만큼, 각각의 개별 장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이 수용자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1: 매체의 장르별 이용에 따라 수용자의 시민성(사회신뢰, 관용)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2: 매체의 장르별 이용에 따라 수용자의 가치관별 속성(전통고수, 성공지향, 정의구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3. 연구방법

3.1 표본 선정, 조사 방법 및 시기, 표본의 특성

이 연구의 모집단은 만 19세 이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거주자들이었으며, 2008년 12월자 주민등록 통계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1:1 개별 면접 방법으로 두 번에 걸쳐 패널조사를 실시했다. 2009년 7월 8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실행된 1차 조사의 표본 크기는 850명이었고, 약 3개월 후인 10월 중순부터 2주에 걸쳐 동일한 집단에 대해 실행된 2차 조사의 패널 표본은 700명이었다. 응답자 표본의 특성은(괄호 안 2차 표본), 남자 48.6(49.3)%, 여자 51.4(50.7%)이며, 연령별로는 20대 21.2(20.4)%, 30대 24.2(23.9)%, 40대

23.2(23.4)%, 50대 15.6(16.0)%, 60대 이상 15.8(16.3)%로 구성되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5.9(56.2)%, 대졸 이상이 44.1(43.9)%였다. 분석에는 미디어 이용 빈도는 1차 조사 결과에서, 그 외 시민성과 가치관 등의 종속변인은 약 3개월 후인 2차 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1.2 측정 변인의 내용

1.2.1 전체적인 텔레비전 시청량

전통적인 문화계발 연구에서 중심변인으로 간주되는 ‘텔레비전의 전체 시청량’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 이용자들의 요일별 생활양식과 시청행태를 고려하여 평일과 주말의 텔레비전 시청을 구분해 측정된 후 모두 더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구체적으로,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을 30분 단위로 질문한 뒤, 평일과 주말을 합산한 하루 평균 매체 이용량으로 계산하였다. 지상파 텔레비전의 시청에 대해서는 (1) 평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 (이용시간 총량을 보기에서 표시하게 함), (2) 주말(휴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질문하였고, 케이블/위성 방송의 시청에 대해서는 (3) 평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과 (4) 주말(휴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질문했다. 각각의 항목은 30분 단위마다 1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게 하였으며, 이 네 가지 항목의 평균을 구해 ‘텔레비전 전체 시청량’을 구했다 (M=6.16, SD=2.84, 최소값=1, 최대값=25: 1은 0분 시청, Cronbach’s Alpha = .72).

1.2.2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장르별 시청 정도

가. 뉴스 프로그램 시청 정도

단순히 ‘뉴스 프로그램’ 시청을 묻는 방식보다 더 정확한 시청 정도를 구하기 위해 지상파 및 케이블 각 채널별 구체적인 뉴스 프로그램을 얼마나 시청하였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지난 한 달을 돌이켜 볼 때, 평균적으로 일주일 동안 다음 각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는지”를 물어 텔레비전 뉴스 시청 빈도를 측정하였다. 즉, (1) KBS1 9시 뉴스 (KBS 뉴스 9), (2) KBS2 8시 뉴스 (KBS 8 뉴스타임), (3) MBC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4) SBS 8시 뉴스 (SBS 8 뉴스), (5) YTN 뉴스 프로그램, (6) MBN 뉴스 프로그램, 이상의 6개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보지 않았

다’를 1로, ‘매일(또는 7번 이상) 보았다’를 5로 하는 리커트형 척도에 답하게 하여 6개 항목의 평균을 구했다. (M=2.12, SD=.70, Cronbach’s Alpha=.67).

나. 시사토론매거진 프로그램 시청 정도

다음과 같은 방송사별 시사토론매거진 프로그램의 시청 정도를 측정했다. KBS1 취재파일 4321, KBS1 미디어포커스, KBS1 추적 60분, KBS1 시사기획 짬, KBS1 심야토론, KBS2 생방송 시사 360, MBC 경제매거진 M, MBC 뉴스 후, MBC 시사매거진 2580, MBC PD수첩, MBC W, MBC 100분 토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시사토론, SBS 뉴스추적. (M=1.75, SD=.73, Cronbach’s Alpha=.95).

다.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 시청 정도

이 연구는 서구의 리얼리티 프로그램들과 차이가 있는 한국적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므로, 조사기간 당시의 텔레비전 편성표와 시청률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리얼리티 표방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였다. 최근에는 케이블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경우가 많고,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을 케이블 채널에서 재방송하는 경우가 많은 경향도 고려했다. 이에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 각 방송사의 15개 유사 프로그램들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각각의 개별 시청 정도를, ‘전혀 보지 않는다’와 ‘조금이라도 본다’로 구분하여, 조금이라도 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리얼리티 표방 TV 프로그램의 시청 지수(index)를 구성하였다 (M=5.74, SD=2.80).²

1 조사기간 당시의 TV 편성표를 참조하여 많은 시간대를 차지하고 방송/재방송 편성되거나 시청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들을 선택한 결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별 프로그램들의 이용 정도에 관해 질문하였다: <1박2일 (KBS)>, <우리 결혼했어요 (MBC)>, <패밀리가 떴다 (SBS)>, <무한도전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MBC)>, <막돼먹은 영애씨 (tvN)>, <악녀일기 (울리브 TV)>, <연애불변의 법칙 (울리브 TV)>, <스캔들 20 (tvN)>, <리얼스토리 료 (tvN)> 등 총 15개 프로그램.

2 이 프로그램들에는 버라이어티쇼, 재현 드라마, 다큐드라마 등 다양한 포맷들이 포함돼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포맷을 좀더 세분화할 경우 각 포맷별로 혹시 효과에 차이가 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기에, 포맷별로 더 세분화된 분석을 추가해본 결과, 일단 이 연구에 선

라. 드라마 프로그램 시청 정도

지상파 방송사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케이블과 위성을 통해 재방송되거나 케이블 자체적인 드라마를 제작하는 근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 경향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DMB를 통해 시청하는 이용 양태를 고려하여, 지상파 채널에서의 드라마 시청과 케이블/ 위성 채널에서의 드라마 시청을 개별적으로 질문하여 측정한 후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으로 통합하였다. 즉 (1) 지상파 TV 국내 드라마와 (2) 케이블/ 위성 TV의 지상파 재방송 국내 드라마 각각에 대해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볼 때, 평균적으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는지”의 빈도를 불었다. ‘전혀 안 봤다’를 1점, ‘매일(또는 7번 이상)’을 5점으로 하는 리커트형 척도에 대한 두 항목의 응답지에 대한 평균을 구했다 (M=2.37, SD=1.05; r=.48, p<.001).

1.2.3 시민성과 가치관

가. 시민성: 사회신뢰와 관용

시민성의 주요한 두 가지 차원인 사회신뢰와 관용은 기존 연구의 방식을 따라 다음의 문항들을 이용해서 각각 측정했다.

사회신뢰: “사람들은 대체로 믿을만하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한다,” 등 총 5개 문항을 사용했다(M=2.79, SD=.45, 신뢰도= .68).

관용: “내가 반대하고 싫어하는 주장이라도 일단 무슨 말인지 끝까지 듣고 보는 편이다,”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도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 총 5개 문항을 사용했다 (M=3.14, SD=.41, 신뢰도= .67).

나. 가치관: 전통고수, 성공지향, 정의구현

베즐리[17][18]의 개인 가치 측정과 슈와르츠[20]의 가치관 서베이 문항들을 현대 한국사회에 맞게[21] 변형하여, 다음과 같은 가치들을 측정하였다. 다음의 ‘가치’들이 개인적으로 귀하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택된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들은 포맷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나타 내지는 않아 포맷별 구분 없이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 이용으로 묶어 최종 분석에 이용했다.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매우 중요하다 5점 척도. (1) 전통을 지키는 것, (2) 현신하는 것, (3) 연장자를 존경함, (4) 권위에 대한 복종, (5) 개인적 성공, (6) 능력을 갖추는 것, (7) 성공에 대한 전망, (8) 영향력을 갖는 것, (9) 포용력 있는 태도, (10) 사회적 정의 실현, (11) 사회 평등, (12) 평화로운 세계, (13) 인생의 즐거움, (14) 흥미로운 삶, (15) 다양한 경험, (16) 도전하는 자세. 이 항목들 점수를 요인분석한 결과,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가치관 점수를 얻었다. 전통고수 (M=3.52, SD=.56, 신뢰도= .64), 성공지향 (M=3.92, SD=.63, 신뢰도= .83), 정의구현 (M=3.94, SD=.56, 신뢰도= .87).

4. 연구결과

연구문제1: 매체의 장르별 이용에 따라 수용자의 시민성(사회신뢰, 관용)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1을 탐구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의 세분화한 장르별 이용의 차이를 분석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했다[표 1].

표 1. 시민성 개발에 대한 장르별 영향 회귀분석 (N=661)

	시민성	
	사회신뢰	관용
인구통제변인		
성별	.10*	.07*
연령	.03	-.09*
교육	.09*	.06
소득	.10**	.11**
관심 독립변인		
TV 시청 총량	-.05	.01
뉴스 시청	-.002	.14***
교양다큐 시청	.001	-.06
시사토론 시청	.15***	.10**
리얼리티 시청	-.12**	.004
드라마 시청	.08*	-.08*
R-squared	.052	.049

*** p < .001 ** p < .01 * p < .05
표 안의 숫자들은 표준화된 회귀계수.

분석 결과,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시청은 시민성의 두 가지 속성인 사회신뢰(β=.15, p<.001)와 관용(β=.10, p<.001)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뉴스 시청은 시민성 태도 중에서도 사회신뢰에는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지만 관용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4, p<.001$). 정보 장르 중 교양다큐 시청은 시민성의 두 속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시민성 태도에 관한 한, 오락 장르로 통칭되는 리얼리티($\beta=-.12, p<.01$)와 드라마($\beta=.09, p<.05$)의 경우, 사회신뢰에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더욱이 드라마 시청은 사회신뢰에는 긍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관용에는 부정적인 상관을 보여($\beta=-.09, p<.05$) 시민성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상반되는 패턴을 나타낸 점이 흥미롭다.

연구문제2: 매체의 장르별 이용에 따라 수용자의 가치관별 속성(전통고수, 성공지향, 정의구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2를 탐구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의 세분화한 장르별 이용의 차이를 분석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했다(표 2).

표 2. 가치관 개발에 대한 장르별 영향 회귀분석 (N=661)

	가치관 태도		
	전통고수	성공지향	정의구현
인구통제변인			
성별	-.03	.01	.08*
연령	.18***	-.13**	.004
교육	.003	-.08*	-.06
소득	-.16	.004	-.01
관심 독립변인			
TV 시청 총량	.14**	.15***	.18***
뉴스 시청	.11**	.11**	.12**
교양다큐 시청	-.05	-.09*	-.05
시사토론 시청	-.17***	-.02	-.04
리얼리티 시청	.02	-.16***	.01
드라마 시청	-.03	-.02	-.11*
R-squared	.091	.063	.058

*** $p < .001$ ** $p < .01$ * $p < .05$
 표 안의 숫자들은 표준화된 회귀계수.

분석 결과,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은 전통고수, 성공지향, 정의구현의 가치에 고르게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반면에,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시청은 전통고수 가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 = -.17, p < .001$) 뉴스 장르의 시청과는 다른 양상의 영향을

을 보였다. 성공지향과 정의구현의 가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뉴스 시청의 영향과는 반대로 부적인 방향의 영향을 보인 것이 주목할 만하다. 교양다큐의 시청 역시 성공지향 가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beta = -.09, p < .05$) 뉴스 시청과 상반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리얼리티 장르의 시청과 드라마의 시청 역시 서로 다른 양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지향 가치에는 리얼리티 시청이($\beta = -.16, p < .001$), 정의구현 가치에는 드라마 시청이($\beta = -.11, p < .05$),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매체의 콘텐츠 장르별 이용에 따라 수용자의 시민성 및 가치관의 속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 데이터에 근거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뉴스 시청은 사회신뢰를 제외한, 관용과 전통고수, 성공지향, 정의구현의 가치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뉴스 시청을 많이 할수록 사회일반에 대한 신뢰와 관용이 높아지고, 전통을 고수하고 정의구현을 중시하며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개발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존에 경성뉴스 및 시사 관련 정보적 사실(fact) 기반 프로그램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간주되어온 교양다큐 프로그램 및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시청은 뉴스와는 상반되는 효과를 보인 점이 흥미롭다. 구체적으로, 교양다큐 프로그램의 시청은 성공지향적인 가치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교양다큐 장르를 많이 시청할수록 개인의 성공지향적 가치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이용은 전통고수 가치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할수록 전통을 고수하려는 가치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존에 동일한 오락 프로그램의 범주로 묶여 연구되어온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용도 드라마 장르의 이용과 그 영향에서 조금 다른 경향을 보였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은 성공지향 가치와 부적인 관계가 있었고, 드라마 시청은 정의구현 가치와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즉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할수록 성공 지향과는 거리가 먼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드라마를 많이 시청할수록 정의구현 가치와는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가치관 형성뿐만 아니라, 시민성의 계발 측면에서도 텔레비전 이용에서 구체적인 장르에 따라 서로 구별되는 영향이 관찰되었다. 뉴스 시청과 시사토론 시청은 사회적 관용에 모두 정적인 관련이 있었지만, 사회신뢰에 관해서는 시사토론 시청만이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뉴스 시청은 유의미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리얼리티 장르의 시청은 사회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드라마 장르의 시청은 사회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도 흥미로운 결과다. 그러나 드라마 시청은 사회적 관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시민성의 속성에 따라 그 영향의 방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장르가 가치관의 영역이든 시민성의 영역이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한 쪽으로 치우친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장르라 할지라도 시청자의 가치관과 태도의 구체적인 하위 속성 및 차원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텔레비전 이용에 대한 향후의 연구들은 미디어 이용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장르적 특성의 영향을 구분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디어 이용의 효과 연구에서 그 영향의 차원에 있어서도 특정 장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속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의 데이터는 리얼리티 장르의 진화 역사에서 버라이어티쇼, 재현 드라마, 다큐드라마와의 혼종 양식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수집된 것으로, 이후 서바이벌 경쟁의 도입이 강화된 상대적으로 최근에 새로운 포맷으로 등장하고 있는 리얼리티 양식의 이용의 효과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연구에서 리얼리티 혼종 프로그램 장르의 진화 과정을 통틀어,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포맷의 차이가 가져올 효과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나은경, 김도연, “리얼리티 표방 TV 프로그램 장르의 문화계발 효과: 현실유사성 인식의 매개와 숙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7권, pp.181-201, 2012.
- [2] 홍숙영,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호, pp.202-212, 2010.
- [3] M. E. Grabe and D. G. Drew, “Crime cultivation: Comparisons across media genres and channel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51, No.1, pp.147-171, 2007.
- [4] W. T. Bielby and D. D. Bielby, “All hits are flukes: Institutionalized decision making and the rhetoric of network prime-time program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9, No.5, pp.1287-1313, 1994.
- [5] S. Neale, “Genre and television,” In G. Creeber (Ed.) *The television genre book*,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8.
- [6] R. P. Hawkins and S. Pingree, “Uniform messages and habitual viewing: Unnecessary assumptions in social reality effect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7, pp.291-301, 1981.
- [7] C. Lee and J. Niederdeppe, “Genre-specific cultivation effects: Lagged associations between overall TV viewing, local TV news viewing and fatalistic beliefs about cancer prevent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3, No.6, pp.731-753, 2011.
- [8] S. Eschholz, T. Chirico, and M. Gertz, “Television and fear of crime: Program types, audience trai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neighborhood racial composition,” *Social Problems*, Vol.50, No.3, pp.395-415, 2003.

- [9] D. Romer, K. H. Jamieson, and S. Aday, "Television news and the cultivation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3, No.1, pp.88-104, 2003.
- [10] L. B. Snyder and R. A. Rouse, "The media can have more than an impersonal impact: The case of AIDS risk perception and behavior," *Health Communication*, Vol.7, pp.125-145, 1995.
- [11] R. P. Hawkins, S. Pingree, J. Hitchon, B. W. Gorham, P. Kannaovakun, and E. Gilligan, "Predicting selection and activity in television genre viewing," *Media Psychology*, Vol.3, pp.237-263, 2001.
- [12] E. Katz, J. G. Blumler, and M. Gurevitch, "Uses and gratification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Vol.37, pp.509-523, 1973.
- [13] M. D. Slater, "Persuasion processes across receiver goals and message genres," *Communication Theory*, Vol.7, pp.125-148, 1997.
- [14] S. P. Winch, *Mapping the cultural space of journalism: How journalists distinguish news from entertainment*, Westport, CT: Praeger Publishers, 1997.
- [15] 김은미, 조성동, "텔레비전과 사회자본: TV시청이 시민규범, 사회신뢰,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1호, pp.105-131, 2012.
- [16] 조성동, 나은경, "매체의 이용 장르와 기능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심리 및 사회자본 변인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방송학보*, 제25권, 제1호, pp.242-286, 2011.
- [17] J. C. Besley, "The role of entertainment television and its interactions with individual values in explaining political participation," *The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Vol.11, No.2, pp.41-63, 2006.
- [18] J. C. Besley, "Media use and human value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85, No.2, pp.311-330, 2008.
- [19] K. L. Cherry, *Reality TV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erception*, A dissertation presented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2008.
- [20] S. H. Schwartz, *A proposal for measuring value orientations across nations*, Vol.17, 2003(2).
- [21] 나은영, 차유리,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제24권, 제4호, pp.63-93, 2010.

저 자 소 개

나 은 경(Eun-Kyung Na)

정회원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사)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 2006년 8월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D.)
- 2006년 8월 :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
- 2010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관심분야> : 미디어심리학, 뉴미디어, 인터넷, 정치 커뮤니케이션